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12.30)」

모두 발언

2024. 12. 3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유관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II.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

‘지속가능성’은 1987년 UN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2000년 UN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2015년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로 구체화되며
금융산업과 경영계에서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도록 UN의 하부조직으로 신설된 브루틀란트 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

다양한 비영리기구에서도 자율적인 국제 논의*를 진행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상황을 알려왔습니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EU에서는 기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NFRD*, CSRD**)을 제정하였으며,

*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14.10월 제정),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2.11월 제정)

I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도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주요국에서
CSRD나 ISSB의 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CSRD)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 내에서도
아직 EU 회원국 27개국 중 12개국*만이
기후공시 법제화를 완료하는 등
아직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법안발효)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핀란드, 헝가리,

(법안미발효) 독일,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이상 법안발의국),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몰타,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미국은 지난 3월 SEC가
상장기업의 기후공시기준을 최종발표하였으나,
관련 소송 제기 등에 따라 추진이 보류(stay)되었으며,
새로운 행정부 이후의 정책방향은
아직 알려진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을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모습입니다.

Ⅲ. 그간의 논의경과 및 논의방향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도
'24.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여,
기업,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시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지속가능공시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기업은
기후공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시 시기나 공시범위 결정 등에 있어
기업부담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관련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참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검토해나가하고자 합니다.

①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있어
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글로벌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우리 자본시장 내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NBIM(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 약 2,250조원의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한국시장에 약 27조원 투자), APG(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 등

③ 내년 상반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일정도 발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시기준 및 로드맵 발표와 함께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혼선을 완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기업들이 공시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무적 중요성 등 일반원칙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시기준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시기준 발표 전이라도
매월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교육을 정례화하여
공시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손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ESG 평가기관 협의체*가 마련한 자율규제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ESG평가기관 3개사(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로 구성,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지원

**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담은 모범규준

관련 제도 기반도 정비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최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의결권 행사나 투자 감소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irreversible)인 흐름입니다.

* 분기별 지속가능펀드 자금유입 : ('20~'21년) 150~200억달러 → ('23년~) 20억달러 이하,
ESG 안건 지지 추세 : ('21년) 63% → ('22년) 56% → ('23년) 48%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기업과 투자자 모두
환경 변화로 투자가치가 급락하여 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글로벌 정합성, 제도준수 가능성, 정보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